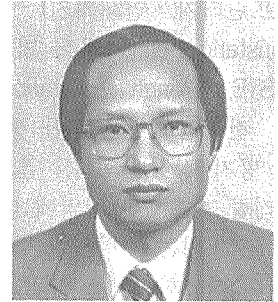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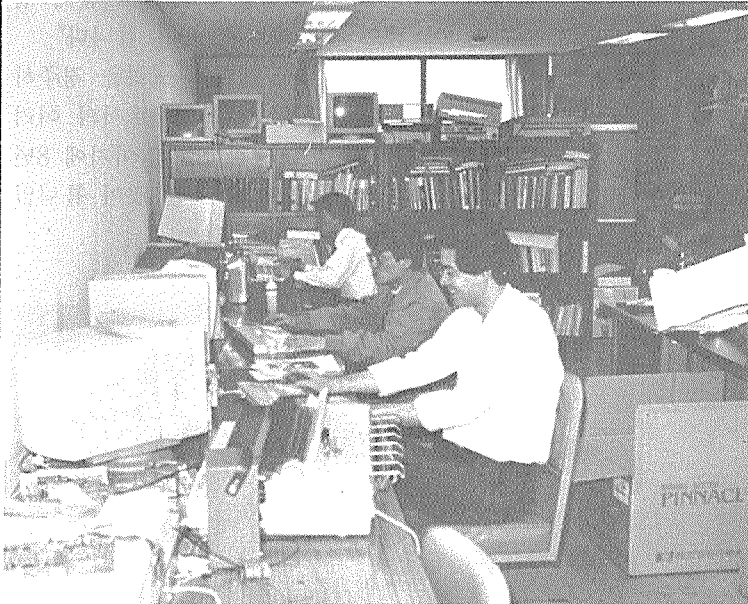


공평한 지원책으로 창조력 활성화를...



金 基 龍
연구소 所長



〈韓國컴퓨터(주)技術研究所〉

- '82. 4 연구소 설립
- '82. 8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
- '87 은행용 통장인쇄기 개발
- '88 PC용 15,000한자 화상처리기 개발
- '89 CD(현금 자동인출기) 공동이용망 구축
CRT Display Terminal 개발
Color Graphic 한글·한자 화상처리장치 개발
- '90 24시간 현금인출기 개발
- 현재 연구원 : 74명

연구소 설립 배경은?

사실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역사는 깊어야 10년 내외입니다. '80년도 들어서야 제법 산

업다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으니까요.

저희 연구소도 '82년에 설립되었으니까 산업체들이 본격적인 정보화제품 판매에 들어

서기 시작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KIPS(Korea International Products Service) 부설연구소 였죠. 본래 저희

회사가 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사업거래가 활발했고, 그 당시만 해도 고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보선진화는 바로 은행쪽이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연구소도 은행 전산망 구축을 앞당길 수 있는 영역으로 연구를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더해 갈수록 연구사업분야를 확장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동통신, VAN쪽으로도 R & D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방향 및 향후 연구소 활동계획은?

금년도 집중연구분야는 Laser Bean Printer 개발 착수와 KAIST CAIR와 공동으로 「Notepad Computer」개발연구, 이외에 INK-JET Printer 개발을 검토중입니다.

또한 Mobile Data Terminal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Passbook Printer 오차 국산화 착수와 은행업무 관련 S/W Package 개발입니다.

앞으로의 연구소 활동계획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V-AN사업 적극진출 및 System Integration분야 연구, 이동통신 분야연구이며 더 나아가 Computer & Network분야의 진출입니다.

인력수급 대책에 대한 견해는?

정보산업 분야가 모두 겪고 있는 일이지만 전문 전산인이 꽤 부족한 실정에서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을 쉬운일이 아닙니다.

인사담당 부서와 협력해서 홍보도 하고, 연구소 관련 소식도 보내고 있습니다.

수년내로 순수연구 인력을 100명 정도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든 향후 컴퓨터 업계에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R & D 투자를 증대시켜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컴퓨터 전공자들 중에서 창조성이 풍부한 인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선발해 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연구소 운영은?

우리 연구소는 개인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정기 M.T, 야유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Incentive제도를 도입, 연구원의 외국연수기회 부여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연구능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밖에 Project 개발의 제도를 운영하여 연구원들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산업계에 대한 의견은?

요즈음 계속 발표되는 이공계 대학 인원 증원과 정보산업 육성 시책 등 고무적인 일도 많아서 업계에 투신하고 있는 일원으로 흐뭇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느끼던 견해를 표명한다면 두가지 입장에서 건의를 하고싶군요.

첫째로 연구기관의 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의 R & D 지원책이 지나치게 정부출연 기관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민간 연구소 지원책도 대기업 부설연구소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때는 서글픈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어떤 한 분야의 Know-How를 축적하고 있는 연구소라면 어디든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전산인의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보분야 및 통신시장 개방에 좀 더 신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동안 안일하게 외국에만 의존하여 한국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지 못한 저희 전산인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현시점에서의 통신시장 개방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야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외국에 이끌려 가는 느낌을 주는 개방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